

TV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and 1-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할리우드에 깨진 한국영화 자존심

‘매드맥스’ 등 외화 점유율 74% ... ‘은밀한유혹’ 6%, ‘무뢰한’ ‘간신’ 등 1% 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한국영화가 관객몰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3월 이래로 주말 극장가에서 한국영화가 관객 수 1위를 차지하기는 14주 가운데 3주에 불과하다.

할리우드 영화는 ‘킹스맨-시크릿 에이전트’(613만명)를 시작으로 ‘분노의 질주-더 세븐’(325만명),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1048만명)을 거쳐 ‘매드 맥스-분노의 도로’(311만명)까지 관객 수나 화제 면에서도 주목받는 데 성공했다.

특히 ‘킹스맨’이나 ‘매드 맥스’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전형에서 벗어난 영화인데도 흥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드라마나 작품성 면에서 별 볼 일 없이 대규모 액션으로 밀어붙이기로 하는 팝콘 무비로 폄하하기에는 관객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하게 할 만한 웰메이드 영화들이 한국 극장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실제 국내 관객들도 이 영화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영화의 성적은 초라했고 화제 면에서도 미치지 못했다.

2월 개봉작인 ‘조선 명탐정-사라진 놈의 딸’(387만명) 이후에 300만명을 넘은 영화는 ‘스물’(304만명)이 전부였다.

그보다 앞서 박스오피스 정상을 한 차례 밟기는 했으나 ‘살인 의뢰’는 90만명이 채 안 되는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막을 내렸고 ‘장수상화’ ‘위험한 상견례2’, ‘순수의 시대’ 등도 초라한 성과를 냈다.

더 큰 문제는 당분간 한국영화에 돌파구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 이는 당장 극장 예매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재난 블록버스터 ‘센

드래곤’(37.5%)와 ‘주리기 공원’의 속편 ‘주리기 월드’(14.4%), ‘매드 맥스’(13.5%), ‘스파이’(8.8%) 등 할리우드 영화 4편이 총 74%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 영화는 이번 주 신작인 멜로 범죄물 ‘은밀한 유혹’조차 6.6%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무뢰한’(1.9%), ‘연평해전’(1.8%), ‘간신’(1.8%), ‘악의 연대기’(1.6%)는 줄줄이 1%대 예매점유율에 머물러 ‘입소문에 힘입은 뒷산’ 측면까지 고려하더라도 흥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 개봉하는 ‘주리기 월드’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떨어진 공룡 테마파크를 다시 부각시키려 과학기술을 동원해 새로운 공룡을 창조하는 이야기로 ‘주리기 공원’을 만든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이 총괄 제작자로 이름을 올린 화제작이다.

이어 내달 2일에는 ‘원조 터미네이터’ 아널드 슈워제네거와 한류스타 이병헌이 출연하는 ‘터미네이터-제네시스’가 개봉해 ‘터미네이터’ 팬들은 이미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있다.

인기 시리즈물은 또 있다. 톰 크루즈의 첩보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로그네이션’과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 ‘앤트맨’도 내달 개봉할 예정이고 8월 20일에는 또 다른 슈퍼히어로물 ‘판타스틱4’가 찾는다.

할리우드 시리즈 블록버스터는 연말까지 예약했다. 11월에는 대니얼 크레이그의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새로운 007 영화 ‘007 스펙터’, 연말 ‘스타워즈-깨어난 포스’까지 개봉한다.

그에 반해 개봉 대기 중인 한국영화 화제작은 내달 개봉하는 최동훈 감독의 ‘암살’, 류승완 감독의 ‘베터라’ 정도다. 기대작이 거품에 콩 나듯 나오는 것은 그만큼 총무로 인해 풀이 작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한국영화 침체 위기론과 함께 끊임없이 나온다.

하남영 영화평론가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한국영화의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다”며 “아직도 박진욱·봉준호·김지운 등 일부 스타 감독에게 의존하면서 새로운 작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극장 예매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재난 블록버스터 ‘센

EBS 1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1 program schedules for 05:00 to 09:20.

EBS 2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2 program schedules for 12:15 to 23:10.

EBS플러스1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Plus 1 program schedules for 00:00 to 11:50.

EBS플러스2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Plus 2 program schedules for 07:00 to 15:20.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8일(음 4월 22일 乙卯)

Table with 4 columns: 운세 (子, 丑, 寅, 卯, 辰, 巳), 생년월일, 운세 설명, 행운의 숫자.

“먹고 살려고 시작한 악극 이제는 전통 살릴 마음 뿐”

악극 ‘봄날은 간다’ 서만난 최주봉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악극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악극이라는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막상 얼굴을 보면 ‘만수 아빠’나 ‘쿠웨이트 박’ 같은 TV 드라마 속 캐릭터가 먼저 떠오르는 배우 최주봉(70·사진). 그는 지난달부터 서울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악극(樂劇) ‘봄날은 간다’를 공연하고 있다.

최근 브라운관에선 그의 활동이 뜸한 상태다.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에 미치지 못해 매달리다 보니 한번에 여러 작품을 못하는” 그의 성격 때문이다.

김철만이는 TV 배우인 그가 악극을 공연한다고 하면 상당수 젊은 시청자들은 그가 ‘악극으로 외도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TV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의 ‘만수 아빠’로 이름을 알리기 전 십수년을 연극무대에서 활동하다가 TV로 옮겨온 연극인 출신 탤런트다.

그는 지난 4월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대학교 4학년이던 1969년 이순재 선생과 나오던 ‘시라노 드 벨주’로 악극에 뛰어들었다. 학교를 졸업한 뒤 극단 기교에 들어가 거기서 평생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윤문식, 박인환, 김진태 등 그와 친한 동료 배우들이 모두 극단 기교 출신이다. 그러던 그가 방송에 나간 것은 연극배우로 10여년째 활동하던 중이었다.

“1979년 한 PD분이 절 연극무대에서 보고 드라마 ‘형사’에 강도 역으로 캐스팅하면서 TV에 처음 출연했습니다. 그때 연기가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 그걸 계기로 단역을 하다가 ‘한지붕 세가족’까지 나가게 됐어요.”

마음은 항상 연극무대에 있었다. 그는 TV에서 얻은 인지도를 등에 업고 무대로 다시 돌아왔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출연료가 적었다.

막상 얼굴을 보면 ‘만수 아빠’나 ‘쿠웨이트 박’ 같은 TV 드라마 속 캐릭터가 먼저 떠오르는 배우 최주봉(70·사진). 그는 지난달부터 서울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악극(樂劇) ‘봄날은 간다’를 공연하고 있다.

최근 브라운관에선 그의 활동이 뜸한 상태다.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에 미치지 못해 매달리다 보니 한번에 여러 작품을 못하는” 그의 성격 때문이다.

김철만이는 TV 배우인 그가 악극을 공연한다고 하면 상당수 젊은 시청자들은 그가 ‘악극으로 외도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TV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의 ‘만수 아빠’로 이름을 알리기 전 십수년을 연극무대에서 활동하다가 TV로 옮겨온 연극인 출신 탤런트다.

그는 지난 4월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대학교 4학년이던 1969년 이순재 선생과 나오던 ‘시라노 드 벨주’로 악극에 뛰어들었다. 학교를 졸업한 뒤 극단 기교에 들어가 거기서 평생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윤문식, 박인환, 김진태 등 그와 친한 동료 배우들이 모두 극단 기교 출신이다. 그러던 그가 방송에 나간 것은 연극배우로 10여년째 활동하던 중이었다.

“1979년 한 PD분이 절 연극무대에서 보고 드라마 ‘형사’에 강도 역으로 캐스팅하면서 TV에 처음 출연했습니다. 그때 연기가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 그걸 계기로 단역을 하다가 ‘한지붕 세가족’까지 나가게 됐어요.”

